

종합

광주시교육청 자사고 기숙사 증축비

시의회, 절반으로 삭감

현직 교육감과 차기 교육감 당선자 사이에 논란이 빚었던 광주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율형 사립고 기숙사 증축비 지원 예산의 절반이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됐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희곤)는 8일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611억 원 규모의 '2010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갖고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송원고(21억7950만원)·송덕고(23억9745만원)·보문고(21억7950만원)의 자율형 기숙사 증축비를 당초 원안이었던 67억5645만원의 절반인 33억7822만5000원을 삭감해 예산결산위원회에 넘겼다. 이번 예산안은 현 안순일 교육감과 장화국 교육감 당선자 사이에 갈등을 빚어온 사안이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예산 전액삭감과 50% 삭감, 30% 삭감안을 놓고 진통을 거듭한 끝에 의원 표결을 통해 50% 삭감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율형 사립고 기숙사 증축 예산과 대성여고 급식소

지원 문제를 놓고 의원들 간에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정교조 출신인 정희곤 위원장과 정현애·김선호 의원은 사립학교에 대한 특혜 등을 주장하며 예산안 전액 삭감을 주장했지만 박인화·임동호·서정성 의원 등은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정희곤·정현애·김선호 의원은 "자율형 사립고 재단은 사전에 기숙사 증축 등에 관한 의무조항을 약속했고, 광주시교육청도 관련 의무사항을 검토한 뒤 지정 승인한 만큼 거액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반면 임동호 의원은 "교육법시행령에는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지원이 위법이라는 규정이 없다"며 "일부 의원들이 특혜나 시급성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자율형 사립고 학생들도 광주의 인재를 양성하는 시설인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성 의원은 "자율형 사립고는 현 교육감의 주요 시책 가운데 하나

로, 이미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20% 선발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지원에 무게를 실었다.

진선기 의원은 "기숙사 증축을 약속했던 자율형 사립고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전체 예산의 50%는 해당 학교, 나머지 50%는 시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고 수정안을 제출했다.

교육위원회는 이어 ▲초등학생 안심 알라미 서비스(1억5700만원) ▲광주공공 급식실 개축공사(6300만원) ▲첨단고 교사 증축(1억원) ▲전남여성 체육준비탈의실(3000만원) ▲살레시오여고 교사재배치공사(23억5000만원)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사학 재단의 투자가 우선되어야 하고, 지원을 받으려면 재단의 일부 투자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대성여고 급식소 예산은 원안대로 23억9300여만원을 통과시켜 형평성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김치축제 홍보대사 6명 위촉

에드워드 권·이다도시 등

세계적인 요리사 에드워드 권 <사진>과 방송인 이다도시 등 국내외 음식 관련 전문가 6명이 제 17회 세계김치문화축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광주시는 8일 "9일 오전 두바이 7성급 호텔 버즈 알 아랍의 수석 총괄주방장 출신인 세계적인 요리사 에드워드 권, 방송인 이다도시, 독일인 한국학자 베르너 샤펜 교수, 재일교포 3세 출신 타니 루미고, 홍콩의 세계적인 미식가 차이관, 싱가포르 코미디언 모세



스립 등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홍보대사들은 세계에 김치를 알리는 전도사 역할과 함께 김치축제 기간 행사장을 방문해 팬사인회, 요리토크 등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제 17회 세계김치문화축제는 오는 10월23일부터 5일간 북구 중앙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세계 문화콘텐츠 한자리에

오늘부터 DJ센터 '국제문화창의산업전'

국내 대표적 방송콘텐츠사와 세계 유수의 방송콘텐츠 제작사가 참여하는 국제문화창의산업전(ACE Fair)이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광주시와 김대중컨벤션센터·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케이블TV호남지역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2005년부터 열리고 있는 국제문화창의산업전은 전세계 30여개국에서 300여개사가 참여하며 530여개의 부스에서 방송·게임·애니메이션 콘텐츠가 전시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국내에서는 CJ미디어, MBC플러스 등 국내의 대표적 방송 콘텐츠사와 함께 3D TV로 기술력을 자랑하는 삼성전자가 참여해 최첨단 3D영상 디스플레이를 시연할 예정이어서 세계 바

이언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유럽 콘텐츠업체들도 대거 참여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콘텐츠 배급 업체인 이마지노브는 단체관을 구성해 게임, 애니메이션, 멀티미디어 관련 업체와 함께 참가한다. 애니메이션 TV시리즈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MONDO TV도 참가해 자사가 제작한 콘텐츠를 아시아 최초로 소개할 예정이다. 또 영국 BBC월드와이드, 미국 소니픽처스, 일본 NHK, 베트남

이대통령 러시아 방문



이명박 대통령이 9~11일 러시아를 방문해 야로슬라블에서 열리는 세계정책포럼에 참석하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이번 포럼의 주제는 '현대국가 민주주의의 효율성'으로, 기초연설을 맡은 이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산업화 과정에서 채택했던 민주주의와 경제의 동반 발전 전략 모형을 설명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아시아 문화가치 공유·소통하자”

2010 亞문화포럼 개막

아시아의 문화 가치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2010 아시아문화포럼'이 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 이틀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새로운 아시아(New Asia)'를 주제로 기초발제와 종합토론 등이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베트남 국립 호치민민문사회과학대학교 보 반 센 총

장이 '새로운 아시아의 발전을 위한 베트남-한국 간 문화 교류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의 기초발제를 통해 양국 간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외세대학교 아시아연구소가 이 토 아비도 교수는 '현대 아시아의 문화적 전통'을 주제로, 동아시아 문화의 다양성을 주제로 한 글로벌 시대의 문화 가치의 가능성을 주장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전남도와 부산시, 경남도 등 남해안 3개 시·도 관광협의회가 남해안을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8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가진 '남해안 관광활성화 선포식'에서 김두관 경남도지사와 박준영 전남도지사, 허남식 부산시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남해안 관광산업활성화 뜻을 폈다

전남도·부산시·경남도 사업 선포식

전남도와 부산시·경남도가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한 뜻을 올리고 세계적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한 힘찬 땀과 노력을 쏟았다.

전남도는 8일 서울 코엑스에서 부산시, 경남도와 함께 '남해안 관광활성화사업 선포식'을 갖고 남해안을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남해안 관광활성화사업은 남해안을 세계적 관광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취지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남도, 부산시, 경남도가 공동으로 풍부한 자연유산을 비롯해 생태·역사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고 홍보를 추진하는 초광역 협력사업이다.

3개 시·도는 국내외 관광객의 유치

를 위해 ▲시간여행 ▲맛 기행 ▲멋과 풍류 ▲블루&그린 ▲크루즈 등 5개 분야 35개 프로그램으로 나뉜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동 홍보와 마케팅 전략을 펼치기로 했다.

전남의 경우 ▲소금이 온다 ▲초요기를 울려라 ▲공통과 함께하는 시간여행 사업 ▲낙지요리 웰빙여행 ▲막걸리와 흥이가 만났을 때 ▲태백산맥 문화기행 ▲남도 소리여행 ▲나만을 성 녹색여행 ▲자전거로 돌아보는 남해안 섬 명소 탐방 ▲다도해·남서동북아 국제크루즈 ▲남서연안 크루즈 사업을 위한 관광 콘텐츠 개발에 나서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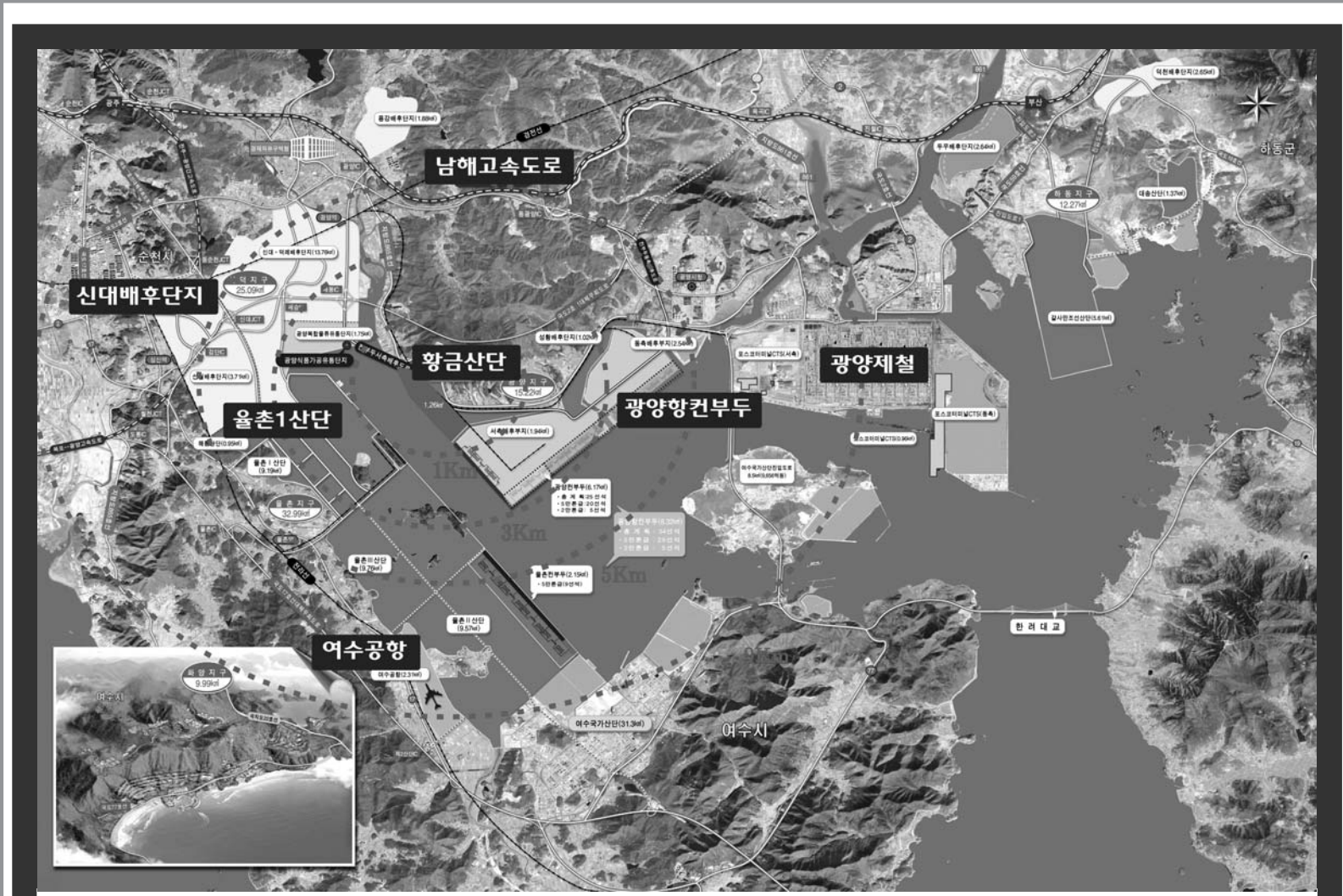
전남도는 또 자체적으로 ▲명품 템플스테이 ▲명랑대첩 역사 관광 여행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및 2012여수세계박람회 관광사업과 관련된 콘텐츠 개발도 추진키로 했다.

전남도는 이 같은 관광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기금 및 자체예산 등 모두 70억원을 투입한다. 3개 시·도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은 모두 236억원 규모다. 해안선을 접하는 전남 12개 기초자치단체(3개 시·도 27개 기초자치단체)도 남해안 관광활성화사업에 동참한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남해안 일대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힘써 남해안이 대한민국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0-24호

황금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시행자 공모 공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지구내 황금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업시행자(우선협상대상자)를 공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9월 9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황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나. 위치 : 전남 광양시 황금동 960번지 일원
다. 면적 : 1,26km²
라. 사업기간 : 2010 ~ 2015년
마. 추정사업비 : 2,659억원 (시설비등 2,245, 보상비 214)
바. 유치업종 : 조립금속, 전기전자 등 컨테이너 화물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는 제조업, 운수업, R&D산업 등 (단, 조선회는 제외)
- 2. 참가자격**
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 요건 중 공모지침에 의한 자격 및 조건에 적합한자 (세부참가 자격요건은 공모지침 참조)
- 3. 사업계획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10년 11월 8일 18 : 00까지

나. 제출부수

사업계획제안 서류	형식 및 분량	제출부수 원본 사본
제 I 권 사업계획제안서 (CD포함)	100쪽 이내	1부 20부
제 II 권 제안공모 참여 신청서	지정 서식 (임의서식 가능)	1부 20부
부속서류 (최근 3개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별권제출	1부 5부

- 다. 제출장소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산단조성과 (방문접수)
- 라. 작성방법 : 사업계획제안서 공모지침에 의함
- 4.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자체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나.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
- 5. 기타**
가. 사업 신청자격 및 조건 등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모지침에 의함
나. 공모지침 등 자료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 게재함 (http://www.gfze.go.kr)
다.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 신청자 부담
라. 문의안내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산단조성과 (☎ : 061-760-5441)

빛의만평 - 김중두

이제는 이제 시급합니다

육아휴직자 내년부터

월 최고 100만원 지급

내년부터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할 경우 매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출산 전 임금의 40%를 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육아휴직급여를 매월 50만원에서 출산 전 임금의 40%로 높이는 내용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5개년 기본계획안(2011~2015년)'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괄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오는 10일 공식 발표하고 14 일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